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 현장점검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이병윤, 국민의힘, 동대문구1)는 제333회 정례회 기간인 11월 6일(목) 오전 서울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데이터를 관리하는 “티머니 상암 데이터센터”를 방

문했다.

티머니 데이터센터는 현재 상암과 하남에 위치하고 있다. 티머니 본사와 근접한 상암 센터는 하남 센터와는 직선 거리 기준 30km 이격되어 있어 한 곳에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중단 없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날 현장방문은 이병윤 위원장을 비롯한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과 서울시 교통정책과가 참석했으며, 세부 업무보고와 함께 상황실 및 데이터센터 등을 둘러보았다.

교통위원회 의원들은 데이터센터의 재난 대비와 보안 시스템, 대중교통 운송 수익금 정산 운영과 관련된 현안, 사이버 위험 등 다양한 질의응답을 통해 데이터 센터 현황을 점검하였다.

특히 교통위원회는 최근 발생한 데이터 센터 사고 사례를 언급하며, 재난·재해 발생 시 서비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 확보 방안 마련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지난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와

2025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해 시민 불편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함에 따라 데이터 센터의 안전확보가 중요해졌다.

현장 방문을 마친 이병윤 교통위원장은 “데이터 센터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데이터가 집약된 중요한 시설이므로 철저한 안전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데이터 센터가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사용 불능 상태가 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염두하고, 티머니에서는 철저한 정보관리와 함께 안전망 강화에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장성 기자

이종환 서울시의회 부의장

‘서울관광 SI 대전환 토론회’ 성황리 개최



서울특별시의회 이종환 부의장(국민의힘, 강북1)은 11월 9일(금) 서울시의회 제 2대회의실에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AX 관광 대전환’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학계, 산업계 전문가, 그리고 200여 명의 시민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종환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인공지능의 잠재력을 어떻게 서울관광의 미래에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관광 산업은 독립된 산업이 아니라 유기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복합 산업으로, 이러한 관광에 AI를 활용하여, 체류 시간을 늘리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관광 생태계를 서울이 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오세훈 시장의 “서울관광 ‘3377 전략은 △3000만 관광객 △1인당 지출액 300만원 △체류기간 7일 △재방문율 70% 등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서울관광 3377 전략”도 AI와 접목되어야 하며, 특히 서울시가 감정이 있는 의료관광도 AI를 활용한다면 새로운 관광 수요를 이끌어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문성호 의원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국민의힘 이장배 대표 의원의 축하에 이어, 그 외 다수 서울시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 했다. 또한, 서울시 관광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구공원 관광체육국장, 권명희 관광체육과장이 참석했다.

이장성 기자

K-웹드라마 어워드 대상, 김진경 의장 “다양한 채널 통한 도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할 것”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제작한 웹드라마 ‘의원탐정 기도경’이 11월 8일 열린 ‘제3회 K-웹드라마 어워드’에서 최고상인 대상(황금해나루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지방의회가 제작한 홍보

용 웹드라마로서는 처음으로 K-웹드라마 어워드 전국 경쟁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한 사례로, 단순한 기관 홍보를 넘어 작품성과 대중성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원탐정 기도경’은 “낮에는 의원, 밤

에는 탐정”이라는 독창적 설정으로, 도민의 민생 현장을 누비며 문제를 해결하는 의원의 모습을 탐정 서사로 풀어낸 작품이다.

총 10부작으로 구성된 이번 시리즈는 실제 ‘보이스피싱’, ‘차매 가족’, ‘한부모 가정 청소년’ 등 경기도의회가 제정한 관련 조례를 이야기 속에 녹여냈다.

특히 2020년부터 매년 한 편씩 제작해온 경기도의회 웹드라마는 올해로 여섯 번째를 맞으며, 도민의 삶과 밀착된 의정 이야기를 쉽고 따뜻하게 전달해 왔다.

이러한 진정성이 작품 곳곳에 녹아 있어, 평소 탐정 추리물을 즐겨 읽는 주인공 ‘기도경’의 시선을 통해 의원의 역할을 흥미롭고 현실감 있게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심사위원단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수상을 통해 홍보용 웹드라마 사업의 성과를 입증함과 동시에, 지방의회와 정책을 알리는 콘텐츠도 충분히 재미와 감동을 전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김진경 의장(더민주·시흥3)은 “경기도의회와 의회의 의정활동이 웹드라마를 통해 많은 분들에게서 알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을 넘어 지방의회 최초로 대상을 수상한 것에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도민과 소통을 활성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원탐정 기도경’은 경기도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으며, 본편과 비하인드 콘텐츠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송민수 기자

용산구의회, 강원·제주서 정책 우수사례 벤치마킹



업센터는 적용 가능한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복지도시위원회는 ▲용산 제주유스호스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제주돌문화공원을 현장 방문해 복지시설 운영현황과 친환경 폐기물 처리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유스호스텔에서는 시설 관리와 이용자 중심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환경자원순환센터에서는 지속가능한 폐기물 처리 시스템과 제도적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위원들은 또한 제주 전통시장과 돌문화공원을 찾아 주민 생활과 맞닿은 현장의 목소리도 청취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단순한 시설 견학을 넘어, 현장에서 얻은 정책적 통찰을 향후 구정에 반영하려는 실천 중심의 행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함대건 행정건설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문화·청년정책을 구체적으로 구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우수사례를 적극 반영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승환 복지도시위원장은 “환경과 복지 현안 해결을 위해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장성 기자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 출산·돌봄 등 도민삶 직결된 현안 집중 점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는 10일 인구전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수 위원장(비례·더불어민주당)은 유관순 햇불상과 관련하여 “유관순 햇불상은 유관순 열사가 태어난 충남의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만큼, 서울이 아닌 충남에서 도민이 함께 축하하고 참여하는 형태로 운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학생 부문은 전국 단위가 아닌 충남 학생으로 한정해 지역 정체성과 상징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순옥 부위원장(비례·국민의힘)은 “365x24 어린이집의 주말 이용 수요가 매우 높음에도 인력 배치가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가 많은 시간대에 탄력적으로 인력을 배치하여, 수요 중심의 운영 체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신 부위원장은 또한 “이제는 출산 지원 정책

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출산이라는 선택 자체를 존중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위원(금산1·국민의힘)은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도민에게 생식세포 동결보전을 지원하는 사업의 예산이 충분치 않아, 남성과 여성이 동시에 신청할 경우에도 최대 지원금액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실질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요가 거의 없는 지역의 예산을 적절히 전용해, 실제 지원이 필요한 지역에 배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광섭 위원(태안2·국민의힘)은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충남도의 지원수당 및 자립정착금 지원과 관련 “충남은 타 시도(서울·경기: 1500~2000만원)에 비해

적은 금액인 1000만 원밖에 못 받고 있어, 자립정착금을 상향할 필요성이 있다”며 “보호종료아동이 자립정착금을 사기당하는 일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종료아동의 건강한 자립을 위해 도에서 관리를 꼼꼼히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제안했다.

박정수 위원(천안9·국민의힘)은 “결혼하지 않고도 동거하는 성인 커플에게 부부와 유사한 법적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는 프랑스의 파스(PACS) 제도처럼 다양한 가족구성을 인정하고 법적보호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우리 도에도 적용되어야 지금의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혼 동거 자녀 양육 등에 있어서 소외되지 않고 똑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철수 위원(당진1·국민의힘)은 외국인 노동자 쉽터 운영과 관련 “소모품비가 100%를 초과한 사유를 명확히 설명

할 필요가 있다”며 “개소 초기라 하더라도 계획에 따른 예산집행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다양한 이름의 돌봄센터가 신설되고 있으나 기관별 예산 격차가 아동들에게 불이익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사업간 형평성을 확보해 예산이 공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정병인 위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은 “1366 운영과 관련하여 정월 28명 중 10명이 결원으로 실제 18명만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특히 1366의 핵심 기능을 담당하는 상담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정상적인 상담과 보호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을 신속히 추진하고, 위탁기관 내부 직원 간 갈등이나 운영상의 문제가 없는지도 도에서 더욱 철저히 관리·감독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현진 기자

시민중심
큰 파주

제29회

파주장단콩축제

The 29th
PAJU
Jangdan
Soybean
Festival

2025. 11. 21. - 23.

파주 임진각관광지

주최 PAJU 파주시

주관 파주장단콩축제추진위원회

문산역에서 무료 셔틀버스 09:00~17:00

주차공간이 협소하니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